

손우철의 행복한 富자되기

금등락 주식장세, 개인 직접투자 하려면

기업가치 살피는 '정공법'이 최고

지수 치솟아도 개인 손해 예사... '대박'은 환상

지난달 25일 증가 기준으로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코스피지수가 최근 20% 가까이 급락했다 반등해 1,800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조정론이 나오고 있지만, 올해 코스피지수가 1,435포인트로 시작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국내 증시가 작년 대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문제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코스피지수는 840포인트로 출발해서 연중 1,400포인트를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1조 6천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만 추종했다라

도 60%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 상황도 2005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가능성은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데다 이로 인한 엔 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가속화 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의 증시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국내 증시 조정을 경고하며, 단기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수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과는 정 반대의 행보를 지속해왔다. 사상 세 번째 낙폭을 기록한 지난 10일 개인은 사상 최대 규모인 7천 412억원의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 기관은 각각 5천257억원과 2천 835억원을 순매도했다. 7월 중순 이후 외국인이 18일 연속 주식을 매도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4일을 제외하고는 순매수 행진을 거듭했다. 결국 이번에도 2005년과 같이 상

승장이 있을 때 뛰어들 개인들이 아슬아슬하게 시장을 지탱하다 시장 외적인 변수를 버티지 못하고 손실을 키우는 것 같아 안타깝다. 특히 증권사 신용잔고와 4조원을 웃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 입금 여력이 없는 신용거래자의 경우 손실 폭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펀드 시대로 접어들면서 투자문화가 간접투자·장기투자로 바뀌고 있지만 주가 상승기에는 누구나 대박의 환상에 사로잡혀 투기적인 직접 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주가가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한 직접 투자는 기업가치를 판단하기 보다 감이나 소문에 기반을 두기 심상이어서 단기적 위험 대처가 어렵다. 지금은 원칙에 입각한 투자 전략을 점검할 때이다. 펀드평가회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8월 10일을 기준으로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인 성장주식형 펀드의 경우 3년 수익률 평균이 168%였고, 신영미래투자형 A형의 경우 3년 수익률이 255%에 달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장기투자·정적투자가 대박투자인 셈이다. <TVN 어드바이저 FP팀장>



한국선금-대한조선 기술교류 협약 해운·해양에 관한 기술 진흥을 모색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비영리 민영기관인 한국선금 오공군 회장과 대한조선 박재영(왼쪽) 부회장이 22일 대한조선 해남조선소에서 기술교류협약을 맺고 있다. <대한조선 제공>

"지방 소비세·특소세 신설 검토 안해"

재정부 세제실장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3일 지방소비세·지방특별소비세 신설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또 고가주택 기준 상향 조정 등 부동산 세제의 완화나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허 실장은 이날 PBC·BBS 라디오에 잇따라 출연해 올해 세계개편안

추진 배경 및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허 실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제기한 지방소비세·지방특별소비세 신설에 대해 "국가가 해야 할 일과 지방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재분배가 선행되고 또 그에 따른 세원 이전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지구온난화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유류에 대한 가격이나 세율 인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혼여성만" "비만자 제외"...

고용 광고 차별 여전

'단순 경리 여자 1명 모집', '비만자 제외 매장판매 직원 모집' 노동부는 지난달 직업정보 제공업체 인터넷 사이트 342곳에 게시된 채용광고 1만1천918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10건 중 1건인 9.9%(1천176건)가 성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거나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외모,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업체별로는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 93.8%를 차지했으며 내용별로는 경리·창구상 담직에서 여성만 모집(53.2%), 생산·영업직종에서 남성만 모집(44.6%),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1.6%), 남녀에게 나이 등 다른 조건 부여(0.4%), 미혼·외모 등 직무수행상 필요치 않은 조건부과(0.3%) 등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한 업체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이 없어 관행적으로 차별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글로벌 신용경색 한풀 꺾였나

코스피 나흘째 상승...1,800선 육박

국내 주식시장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 대책 추진에 힘입어 글로벌 신용경색 충격 을 딛고 안전한 회복세를 보였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에 비해 40.22포인트(2.29%) 급등한 1,799.72로 마감됐다. 이날 가파른 상승세로 출발한 지수는 장중 1,816.19까지 치솟았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었다. 코스닥지수는 14.84포인트(2.00%) 오른 756.27로 장을 마쳤다.

전날(현지시간)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인수·합병(M&A) 재료에 힘입어 1% 이상 동반 상승했다는 소식에 글로벌 신용 경색 충격에 급락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국내 증시의 투자심리가 더욱 호전됐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오전에 1천조원을 돌파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면서 증가 기준 '1천조원 시대' 재개막에는 실패했다. 정규장 마감 기준 유가증권시장(895조4천789억원)과 코스닥시장(100조3천797억원)의 시가총액은 총

995조8천586억원이었다. 장 초반 매수세를 보이던 외국인은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 910억원 순매도, 개인도 3천866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다. 반면 기관은 프로그램 매매를 중심으로 4천693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증시는 이날까지 나올 연속 반등, 단기 저점이었다던 이달 17일의 1,638선 대비 161.65포인트(9.86%)나 올랐다.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도 17일 904조3천310억원까지 추락했다가 반등 흐름에 힘입어 90조원 이상 불어났다. <장필수기자 bungy@>

"서브프라임 실물경기 영향 없을 것"

임영록 재정부 차관

임영록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3일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실물경기 침체로까지 파급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비중이 작고, 세계경제 펀더멘탈이 견실하며, 각국 중앙은행이 유동성 지원과 재할인을 인하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재정부가 직접 민간연구소들에

성장률 등 거시경제 영향에 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크게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는 전했다. 임 차관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과 관련해서도 "아직 주요국 간 금리차가 커 구조적 측면에서 급격한 청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또 국제적 엔캐리 청산이 발생해도 우리나라는 엔캐리 자금 유입 규모가 크지 않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부분이 건전해 직접적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73-5279

봉선직영점

오픈성업중

172-5279 674-8279

카레검색 해서 마늘주사 후루민 을 보세요

<http://cafe.daum.net/furumin>

대표점 : Fyarin Rimada 국제파사르점

판매점 : 후루민점

171-062-383-5883

마늘주사 후루민에 후지아싱 병·의병 원장님 및 일반 후지아싱 모십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꿈은 아름답습니다. **아오자이 국제결혼**이 함께합니다.

본사만 8년

1.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있는 국제결혼 전문 업체입니다. 베트남에서 8년째 운영 중입니다.

2. 현지에서 직접 상담을 받습니다.

3. 베트남에서 직접 상담을 받습니다.

4. 베트남에서 직접 상담을 받습니다.

5. 베트남에서 직접 상담을 받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10년 이상은 경험한 국제결혼 전문 업체입니다. 약속하는 국제결혼 전문 업체입니다.

아오자이국제결혼

062)232-8966

010-5256-8966